



KLTA NEWS + 2013 Spring

이돈구 산림청장, 12월 11일 모스크바 국립산림대학 특강 "산림은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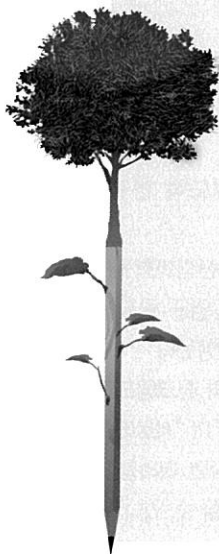


한국-러시아 산림협력회의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돈구 산림청장이 12월 11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국립산림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은 우리의 미래'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 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와 생애주기 산림복지, 산림의 자원화 등 우리 산림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의의 성공적 개최, 아세안 10개국과의 산림협력 강화현황, 사막화 방지·황폐지 복구, 조림기술 지원 등 한국의 해외 산림분야 협력활동 상황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청장은 "산림은 성장잠재력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미래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며 "러시아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산림분야로 나가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여(think globally, act globally)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노용석 사무관
(042-481-4081)



3.5시그마 달성, 24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골드클래스 받아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국가생물종지식정보DB(데이터베이스)가 24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인증에서 골드클래스 인증을 받았다. 골드클래스는 3.5시그마(97.7%)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국내 평균 3.13시그마(94.8%)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생물종지식정보DB는 지난 1998년부터 식물·곤충 등의 표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올해까지 모두 8357만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대표 DB다. 이 정보는 생물다양성(CBD) 협약에 따라 생물자원 관리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산림분야 중요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데이터 인증을 위해 분야별 산림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스템별로 운영하는 데이터의 표준을 정해 시스템간 효과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전사아키텍처(EA)를 도입했고 이를 활용해 업무·응용·데이터 등을 고려한 분야별 아키텍처 관리반을 통해 효과적인 산림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각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또 산림데이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EA관리체계의 표준처리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데이터 관리도 표준관리 시스템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찬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내년에는 국토관리에 필수적인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국가산림정보의 정확성을 더 높ی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변상우 주무관
(042-481-4285)

올 산림분야 최고 핫이슈 '산림교육시대 개막' 2012 산림 10대뉴스 선정...AFoCO출범 · 1천억대 임 야기부 등도 포함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산림공원 등 산림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하는 등 올해부터 산림교육 시대가 시작된 사실이 올 한해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가장 큰 이슈로 선정됐다. 또 최초의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출범하고

그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한 것과 팔순의 독립가가 1000억원대의 임야를 국가에 쾌척한 사실도 올해 큰 관심을 끈 이슈로 뽑혔다.

산림청은 30일 정책고객과 네티즌이 뽑은 '2012 산림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산림청이 12월 한 달 동안 자체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들어오는 네티즌과 12만여 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선정했다.

'산림교육시대 개막'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청소년의 산림교육 장소로 개방되고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등 대국민 산림교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를 대상으로 당일형·숙박형 체험캠프 등 숲속에서의 학교폭력근절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는 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9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산림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전체 아시아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출범한 AFoCO는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가 주도한 최초의 산림분야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또 식목일을 앞두고 모범독립가 손창근씨(84)가 경기도 안성과 용인의 대규모 임야를 다음 세대를 위해 국가에 기부한 사실도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끈 뉴스였다. 그가 기부한 임야 662ha(약 200만평)는 서울 남산 총면적의 2배로 시가로 무려 1000억원을 넘는다. 여간해서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얼굴 없는 기부왕'으로 불리는 손씨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산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1960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올해

가 가장 산불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기록됐다는 사실과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20·정상회의에 이돈구 산림청장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산림·사막화 등에 관한 국제논의를 주도한 것도 10대 뉴스에 들었다. 임산업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한 한국임업진흥원 출범(1월 26일), 국내 최초의 산림특성화 고교 한국산림과학고 개교(3월 2일), 산사태 피해의 급격한 감소, 목재분야 최초로 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1월 20일), 목재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목훈식 페스티벌(11월 5일) 등도 올해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은 산림분야 주요뉴스였다.

문의 : 산림청 대변인실 염동현 사무관
(042-481-8850).

이제 시작이다! 여의도 면적 38배 숲가꾸기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1월 8일(화) 지방청 대강당에서 사업 참여 근로자, 임업관련관계자, 남부산림청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영남지역 숲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내실있는 숲가꾸기 실행 의지를 담은 '결의

문 낭독' 과 '참여 근로자의 청렴이행 서약서' 를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숲가꾸기 참여근로자의 안전 하고 예방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림작업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의도 면적의 38배(국토 해양부에서 '12년 정한 여의도 면적 2.9km²)에 해당되는 11,000ha에 230여억원을 투입 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인 원 30만명의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숲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고용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산림청, 산림예산 446억원 상반기에 분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지역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예산 조기집행 대책"을 마련 하고 올해 주요 사업비 714억원 중 62.5%에 달하는 44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이 활발한 1월 중에 산림분야

일자리아업 근로자 선발을 완료하고 산불방지 무인 감시카메라와 같은 장비 구입을 서두르는 한편, 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과 사방댐 등 시설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업 착수와 동시에 선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청장 주재로 예산조기집행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팀 별로 상시현장점검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2%의 낮은 경기 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산림에 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연계한 녹색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취임

10일 취임식 갖고 "미래지향적 산림연구기관 도약" 다짐



국내 최고(最古)의 산림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윤영균 제19대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윤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산림청의 싱크탱크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며 "서로에 대

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연구에 매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전 직원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업무를 개발하고 연구자 개인의 내공을 쌓는 등 인재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목삼착(一沐三捉, 한 번 씻으면서 세 차례 손님을 맞음)’ 했다는 주나라 주공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윤 원장은 앞으로 2년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정책 지원 연구, 정책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행정과 현장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산림 행정·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에 힘써 온 윤 원장은 지난해까지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지냈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임업연구사 이육
(02-961-2582)

남부산림청, 여의도 면적 8배 면적 개인산 매수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

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4개 시·군의 개인 산 2,30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63%인 7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할 계획이며,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산림청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법령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재산권이 제한된 산림과 기존 국유림에 인연접되거나 대면적의 사유림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매수하게 되는데 매수가격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

권용철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힘든 임야는 산림청에 매도해 주실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18일 전국산림관계관회의...지자체·관련기관 등에 올해 주요업무 설명



올해 안으로 산림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처하는 맞춤형 방재시스템이 마련되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산림 분야 일자리와 관련한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북한산림 황폐지 복원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차기 정부의 산림관련 공약에 바탕을 둔 이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업무로 삼아 올해 산림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18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산림관계관회의에서 공개된다.

전국 산림관계관회의는 매년 초 전국 광역지자체의 산림담당 공무원과 산림청의 소속기관장, 산림조합 중앙회 간부와 지회장 등에게 한해의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돈구 산림청장과 김남균 차장 및 각 국장 등 산림청 주요 간부를 비롯해 각 시·도 산림국장,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과 각 도 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 국장들이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각 기관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참석자들이 산림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집중 수렴해 정책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공약에 산림분야와 관련된 것이 많다.”며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 건설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하경수 사무관
(042-481-4051)

